

## '600mm 물폭탄' 수마가 핏퐁 광주·전남 곳곳 생채기

10명 사망·1명 실종  
이재민 3174명 발생  
농·축·수산 피해↑  
오늘부터 태풍 영향권



폭우가 쏟아진 8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이 수중도시로 바뀌어 버렸다. (사진=구례군 제공)



7일 광주·전남에 시간당 최고 6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북구 문흥동 문흥성당 주변 일대 차량이 빗물에 침수돼 있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광주·전남지역에 사흘 가까이 최대 6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생채기를 남겼다. <관련기사 9면> 시간당 90.8mm의 강한 비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산사태·급류·침수 여파로 10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하천 범람과 함께 도농 곳곳이 물바다로 변해 시설물 파손과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9일 광주시·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0시부터 이날 정오까지 누적 강수량은 담양 612mm를 최고로 광주 533.7mm, 화순(북면) 517.5mm, 장성 457.5mm, 나주 385.5mm, 구례 351.5mm 등이다.

시간당 최고 강수량은 광주공항 90.8mm (8일 오전 9시 6분부터 오전 10시 6분 기준), 담양 봉산 87mm 등을 기록했다. 광주 공식 관측지점인 북구 운암동 기상청에도 8일 오전 6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82mm의 폭우가 쏟아졌다.

기록적 폭우에 전남에서 9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광주는 1명이 숨졌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전남 곡성군 고달면 하천에서 실종됐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오전 10시 42분께 화순군 한천면 한

마을에서 60대 남성이 농수로 정비 중 급격히 불어난 빗물에 휩쓸려 숨졌다.

8일 오전 6시 25분께 담양군 금성면 야산에서 무너진 흩어 주택을 덮쳤다. 70세 여성이 구조 직후 숨졌다.

앞서 8일 오전 4시께 담양군 봉산면의 한 주택에서 급류에 휘말려 실종됐던 8세 남아는 신고 접수 10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7일에는 오후 8시 29분께 곡성군 오산면 한 마을 야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주택 5채를 덮쳤다. 매몰된 주민 5명 모두 숨졌다.

8일 오전 5시께 담양군 금성면 대곡교차로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하천에 떠내려가 운전자가 실종 상태다.

광주에서는 8일 오후 1시 57분께 북구 신

안동 모 오피스텔 지하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비 피해 상황을 살펴보다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담양 대덕면 주택 1채 파손으로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재민 현황은 광주 400명(북구 7명), 전남 2774으로 집계됐다.

'섬진강·영산강 수계 범람'으로 재산 피해도 잇따랐다. 광주에서는 공공시설 299곳이 피해를 봤다. ▲도로 286곳 침수·파손 ▲가로수 12곳 ▲단수 1곳이다.

광주 사유시설 침수·파손 피해 현황은 ▲주택 326곳 ▲하수도 92곳 ▲농경지 38곳 ▲석축 옹벽 23곳 등 733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남 지역 공공시설 131곳도 피해가 났

다.

▲하천 시설 6곳(담양 창평·오례·금현천, 화순 동천, 구례 서시천, 영광 불갑천) 제방 일부 유실 ▲도로 114곳 침수·파손(62곳 복구 완료) ▲철도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선로 5곳과 전라선(익산~여수) 다리 1곳 침수 ▲곡성·구례 하수처리장 등 상하수도시설 6곳 등이다.

곡성 배강 저수지 제방 30m, 화순 서성제 방수로 사석 15m, 담양 금연제 제방 20m도 훼손돼 응급 복구 중이다.

전남에서는 주택 1155채가 침수·파손·매몰됐다. 농·축·수산 분야 피해도 속출했다. 함평·영광·나주·곡성·담양·장성 등지에서 밭은 6202ha가 침수됐다. 시설 작물 317ha, 발작물 211ha, 과수 93ha도 물에 잠기거나 낙과·도복·유실

피해를 입었다.

11개 시·군에서 농가 126곳이 침수·매몰 피해를 봤다. 나주·담양·함평 농가 24곳의 닭·오리 21만 7000마리가 폐사했다. 곡성·구례·화순 양식장 8곳이 침수돼 뱀장어·메기 등 4324만 마리가 유실됐다.

이날까지도 물바다로 변한 강과 하천 일대에 고립된 주민 구조 활동은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전남도는 호우 피해 상황 파악과 복구 작업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다만, 태풍 장미 북상 등의 여파로 10일부터 11일 사이 100~2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어 복구 차질과 추가 피해 발생도 우려된다.

정승호 기자

## 광주·전남 등록금 반환 잇따라...조선대 이어 호남대도 동참

조선대 11.5% · 호남대 11% 감면

광주·전남 대학들이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원격+대면 혼합형 수업'을 기본으로 학사 일정을 운영키로 한 가운데 조선대에 이어 호남대가 두 자릿수 등록금 감면을 결정해 지역 대학가 등록금 반환 행렬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호남대는 9일 "수년간 지속돼 온 등록금 동결·인하와 코로나19 등으로 재정적 어

려움이 크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재학생에게 본인 부담금의 11%를 특별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학년도 1학기 학부 정규학기 재학생으로 등록금 실 납부액의 11%를 감면해주시기로 했다. 2학기 등록금에서 감면하는 방식이다.

박상철 총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

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특별장학금을 지원, 2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면해주시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최적화된 교육 환경에서 학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우 총학생회장은 "대학 측에 감사드리며, 학우들이 최상의 학습 여건 속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조선대는 지난 6일 전체 학생에게

2학기 등록금의 11.5%를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자기부담금의 11.5%로, 1인당 최대 25만 원까지 감면해주시기로 했다.

대상자는 2020학년도 1, 2학기 연속등록생에 한하며 8월 졸업자와 휴학생은 장학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지급할 예정이다. 수혜 학생은 1만 9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민영돈 총장은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부모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로 불용 예산과 교직원 성금 등을 모두 끌어 모아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대표 사학인 조선대와 호남대의 이번 결정으로 지역내 다른 대학들도

등록금 반환 또는 감면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반환 목적으로 특별장학금을 지급키로 한 대학은 국·공립 30여 곳, 조선대 등 사립 50여 곳 등 전국적으로 80여 곳으로, 교육대학을 포함해 전체 대학의 40%에 이른다.

광주·전남에서는 학생수 부족과 코로나19로 인한 자체 수익 약화, 여기에 고질적인 재정난 등으로 등록금 반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조선대와 호남대가 물꼬를 텄고, 타 지역 국·공·사립대들도 속속 반환에 동참하고 있어 동참하는 대학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조인호 기자

###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노사민정이 손을 잡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냅시다.

이겨내자  
코로나

- 기업은 고용유지에 힘쓰고
- 근로자는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 정부는 일자리 안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불안 · 노사갈등 노동문제로 애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를 해드립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